

외식산업에서 조리학의 학문 분야간 문헌의 인용 유형에 관한 연구

김 기 영[¶]

경기대학교 관광학부 외식조리전공 부교수

A Study on the Interdisciplinary Citation Patternship

Ki-Young Kim[¶]

Professor, Dept. of Foodservice Management, Kyongg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distribution ratio of citation in researches in food service and found the relationship of study. The result was as follows.

First, there were remarkably quantitative researches than qualitative researches.

Second, the citation ratio of social studies was high according to frequency-analysis.

Third, citation frequency of publication was the highest in the pre-study that included scientific papers, newspapers, art and science contest announcement data and so on.

Fourth, there was much citation ratio of domestic literature than foreign literature.

Key words :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citation frequency.

I. 서 론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 구조 속에서 형성하는 공동적인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조직과 집단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조직적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조직적 체계요소가 없이는 커뮤니케이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상이 된다.

학문분야에서도 기업조직의 커뮤니케이션과 마찬가지로이다. 모든 학문분야의 창조 활동도 연구자와 연구자, 학문과 학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1983년 2년제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경희호텔전문대학의 조리학과와 1995년 경기대학교 관광학부에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한 것을 효시로 외식조리학은 약 20

¶ : 교신저자, kykim@kyounggi.ac.kr, 011-468-3243

년이라는 세월동안 한국의 사회문화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 그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발전에도 진일보 단계와 속도를 갖추고 양적인 변화와 함께 질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결과를 낳았다. 관광경영학에서 파생되었던 외식조리학 분야가 외식조리학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개설함으로써 본격적인 학문의 분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에 편승하여 연구자들과 관련 연구기관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정보 생산자라 할 수 있는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나 실험, 관찰 등을 분석한 연구논문을 전문학술지를 통하여 발표하고 또 평가받게 된다. 이 평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겠으나, 단적으로 표현하면 출판 후 논문이 전문분야의 학문발전에 얼마나 기여했고, 또 다른 사람의 저서나 연구논문에 얼마의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인정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사회나 그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안의 집단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절실히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조직적 활동의 필수적 요소이며, 이것이 없는 조직체는 생각할 수 없다.

모든 학문분야의 창조적인 활동은 학문영역별 접근되는 방법과 그 분야를 직접 연구하는 연구자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연구는 항상 선행 연구의 기초위에서 철저히 이루어짐과 동시에 해당 연구문헌을 어떻게 인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저작들은 이전의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연구 업적의 정당성을 입증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구가 실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학문간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연구자들의 문헌인용 습관과 인용문헌의 분석을 통한 연구자들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관한 연구를 타 학문의 문헌 접근을 보면 알 수 있다. 외식조리분야의 연구자들은 평소 어떤 분야의 문헌들을 많이 읽느냐에 따라 외식조리분야의 주요 문헌들에 친숙하고 학문의 편협성(disciplinary provincialism)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의 설계와 운명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본다. 학문적 발전의 시기가 타 학문에 비해 상당히 짧고 발전의 전개도 그리 광범위하지 않은 외식조리분야의 인용연구방식과 인접학문의 커뮤니케이션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볼 때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을 본 연구의 문제로 제기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학문분야간의 연구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1970년대 초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은 것 같다. 학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학문 발전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며, 또한 연구자들의 정보교환 활동은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식조리학의 학문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은 어떤 타 분야의 연구 성과를 어떤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하여 이용하며, 어떤 시기에 간행되고 어떤 언어로 기술된 타 분야의 문헌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연구자가 사용한 전체 타 분야 연구 성과에 대한 학문 분야별 이용 비율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자들이 이용한 전체 타 학문 분야 연구성과에 대한 학문분야별 이용비율을 확인한다.

셋째, 연구자들이 인용한 전체 타 분야 문헌에 대한 발행연도와 학문분야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연구자들의 발행연도와 학문분야간 그리고 발행연도와 발간형태별 차이분석을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식조리학의 인용 분석 이론

1) 인용분석의 역사적 전통

1873년 실용화된 "Shepard's Citations"가 미국의 각급 법원은 판례를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작성하기 시작한 것처럼 문헌인용의 전통은 역사의 가치를 존중하다거나 위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한다(Melvin Weinstock 1971).

정보의 네트워크화는 시공간적 환경 즉, 과거의 지리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발달은 때때로 정보 고속도로 혹은 국가 데이터 고속도로(National Data Highway)라고 일컬어지는 국가 정보 기반구조(NII)를 구상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정치인, 학자, 연구자, 기업가들 및 군대에 의해 촉진되었다. 그 같은 고속도로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그 네트워크들에 포함된 세계의 거의 어디서나 접근, 수정 혹은 반입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정보 네트워크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발달한 학문영역이 바로 정보학이다. 정보학(Information Science)란 정보의 속성과 행태, 정보의 흐름을 지배하는 힘 및 최적의 접근성과 가용성을 위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처리는 정보의 창안, 배포, 수집, 조직, 저장, 검색, 해석과 이용을 포함한다. 이 분야는 수학, 논리학, 언어학, 심리학, 컴퓨터기술, 경영연구, 그래픽 아트, 커뮤니케이션, 도서관학, 경영학 및 다른 분야들로부터 파생되거나 관련된다(Taylor & Robert 1966). 만약 정보가 우리의 삶과 사회 전체의 중대한 측면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보전문가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하고, 관리하고, 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으로 배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문헌정보학은 인간의 지적 유산인 지식과 정보를 각기 다른 학문적 전통과 관심 영역으로 다루어온 도서관학, 도큐멘테이션, 정보학이라는 세 분야를 포괄하는 보다 상위적인 개념의 학문이다. 문헌정보학은 이들 세 분야에서 고유한 방법과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보의 생산, 조직, 가공, 축적 및 이용에 대하여 연구할 뿐 아니라, 정보가 사회, 문화, 경제 및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범주 안에서 도서관학, 도큐멘테이션, 그리고 정보학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보완적인 관계를 이룬다고 하겠다(구본영 2003).

미국의 경제학자 Kenneth E. Boulding은 정보나 지식·기술 등 인간의 모든 지혜를 고차원적인 재화로 보아야 하고, 이를 경제학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중요하고 새로운 개척분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Kenneth E 1969), 일본의 額田巖 등도 “현대의 상품은 형태가 있는 물적인 財(재)로 점차 중점을 이양해 가고 있다”고 한다(額田巖 1971). 여기에서 “형태를 가지지 않는 무형의 재(關英男 1971)”란 정보나 지식 또는 인간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의 연구 활동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와 그들의 존재를 이해하려는 욕구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연구 활동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경험을 통하여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보다 완벽한 지식을 찾아내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은 과학적인 연구방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물론 하나의 연구가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법이 조직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또한 계획에 바탕을 둔 자료수집과 분석 및 해석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며, 개별적 설명이 아니라 일반법칙에 근거한 설명이어야 한다. 이때 과학적 연구방법(Scientific Research Methods)은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이에 대한 규칙이나 질서를 발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정동열 1992).

연구의 기본 목적은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데 있다. 인용문헌 분석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주제 분야에서 저자들이 인용한 자료들을 조사, 분석하는 방법이다. 인용문헌 분석의 주목적은 저자들에 의해 인용된 자료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프리스(Friis 1955)와 프로스트(Fost CO 1989)는 “인용문헌 분석은 인용된 출판물들의 종류들을 밝힘으로써 한 주제 분야 문헌들의 질과 그 분야에서의 추세를 폭넓게 지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인용문헌 분석은 문헌들의 최신성과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 또는 연구와 출판에 참여하는 저자들을 밝힐 수도 있다.

2) 외식조리학의 학문적 분과성향과 정의

보통 학문이 독립된 분과과학으로 성립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Dann et al. 1988). 첫째, 전문화 과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학문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

서 분화가 요구되고 그 결과 새로운 학문의 분과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새로운 이론의 발견이 기초가 되어 학문이 분과되는 경우이다. 대부분 자연과학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학적 혁명 같은 것에 의해 분화되는 경우이다. 셋째, 새로운 주제에 대한 개안이 있다.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연관되어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실천적 접근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욕구의 흐름과 일치하여 학문이 성립된다는 것이다(Dann et al. 1988).

외식조리학이 하나의 분과학문으로서 인식된 배경을 위의 세가지중 선택하면 마지막 경우에서 그 유사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외식조리학의 형성 배경이 기존 학문의 분화나 이론의 진화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삶의 문제 출현에 더욱 근거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학문 자체의 자발적인 인식보다는 사회의 요구와 요청에 더욱 기초하고 있다.

학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은 날로 그 종류에 있어서 서로 독립된 하위영역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단순히 기존의 학문이 세분화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학문으로 파악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짐으로써 학문의 외곽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학문분야간의 발전은 더 나은 지식의 등장으로 인해, 그리고 상당부분 이전에는 전혀 다루지 않거나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대상세계로 그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경우는 혁명적인 전복보다는 우리가 이제까지

〈표 1〉 기간별 관광학 연구지 논문의 접근방법 및 방법론의 우수성(1977~2001)

방법론별	기간별 논문 편수(단위 : 편, %)				
	1977~84 (N=81)	1985~90 (N=74)	1991~93 (N=56)	1994~95 (N=28)	1996~2001*
접근방법별					
규범적	3 (3.7)	- (00.0)	1 (1.8)	1 (3.6)	4 (2.3)
기술적	42 (51.9)	41 (55.4)	4 (7.1)	2 (7.1)	5 (2.9)
경험적	8 (9.9)	13 (17.6)	0 (0.0)	24 (85.7)	156 (89.1)
처방적	28 (34.6)	20 (27.0)	1 (1.8)	1 (3.6)	10 (5.7)
방법의 우수성					
빈약	63 (77.7)	54 (73.0)	6 (10.7)	8 (28.6)	13 (14.3)
보통	12 (14.8)	8 (10.8)	3 (5.4)	12 (42.9)	36 (39.6)
우수	6 (7.4)	12 (16.2)	7 (12.5)	8 (28.6)	42 (46.2)

* 방법의 우수성은 1990 ~ 99년 기간의 자료임(표본수 N=91)

자료 : 김사현, 관광학연구방법강론, 백산출판사, 2002, p.104.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의 탐색과 발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조리학에 관한 정의는 “조리에 관한 일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과학으로서 자연과학적 요소가 기초이며,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등이 교차하는 경계영역의 과학(박영선 2000)”이라는 자연과학적 측면의 정의가 있다. 그러나 외식조리학의 기초는 자연과학적 연구를 시작으로 하면서 인문학, 사회과학 등의 인접과학의 성과를 도입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식조리학은 각종 과학이 잘 교차된 경계영역의 학문이며 종합과학이다.

한 학문의 학문적 수준이나 연구방법론이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룩하였는지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학문 분야 전문학술지의 수준이나 연구방법론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기법을 통한 외식조리학의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관광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관광학계의 대표적 정기학술지라 할 수 있는 “관광학 연구(Journal of Tourism Sciences)”의 게재논문들을 통해 이를 알아본 연구가 있다(김사현 2002).

이러한 연구는 192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하여, 처음에는 신문기사를 분야별로 분류하고 행수를 세어 그 신문의 경향을 파악하는 식의 매우 소박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중 H. D. 라스웰 등이 미국 의회도서관 내에 설치한 “전시 커뮤니케이션 연구 프로젝트”의 업적에 의해 내용분석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이후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요 분야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대규모의 분석에서는 노력과 경비가 막대하여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결함 때문에 한동안 퇴색 경향을 보였으나, 근래에는 컴퓨터 등이 이용되면서 재평가되고 있다. 내용분석의 용도는 메시지 내용 자체의 구조분석(신문기사·방송 프로그램 등) 외에, 메시지 제공자의 분석·메시지 수신자의 심리 분석 등 다양하다. 또 방법론적으로는 수량적 분석과 질적 분석으로 대별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나치스 독일의 신문이나 뉴스영화 및 공산주의 선전에 관한 연구를 하여 수량적 분석의 방법론을 확립한 라스웰의 업적이 유명하며, 대표적인 질적 분석으로는 미국 전기물의 주인공에 관한 L. 로웬털의 연구와, 라디오 연속극 등장인물의 주인공에 관한 R. 아른하임의 연구 등이 있다 (<http://www.naver.com>).

2. 문헌인용과 커뮤니케이션 이론

1) 커뮤니케이션 유형

과거 인쇄술의 발명은 학문간의 문헌인용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의 다양성을 띄게 되었다. 17세기에 이르러 밝혀진 지식을 교환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학회가 조직되고 그로 인한 지식의 전파는 물론 학문 분야간 협력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학회에서 발표되거나 토론된 내용이 학회지의 형식으로

출판되면서 학회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보장되었다.

1662년 영국에 "The Royal Society의 Philosophical Transactions", 1665년에는 프랑스에 "Academie Royale des Science의 Le Journal des Scavans"를 각각 창간하여 연구자들의 새로운 발견과 연구성과를 기사형식으로 사회에 발표하는 전통을 학문에 도입하였다(김용성 1989). 이를 계기로 학문분야간 세분화의 기초를 다지면서 해당 분야의 독자들에게 충족된 정보를 전달하고 외부독자 즉, 타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학술 잡지는 연구 성과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연구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광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Halbert & Ackoff 1999).

오늘날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은 학문분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연구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문헌뿐 아니라 인접 학문 분야와 그 밖의 분야에 대한 문헌까지도 인용하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인문과학은 키케로(Marcus T. Cicero)의 후마니타스에서 비롯되어 로마 사회의 이상적인 인간형을 양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었다. 어문학적 수련으로부터 음악, 기하학, 천문학, 윤리학, 물리학, 법률, 행정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교육과정이었다. 르네상스 이후 지식의 분화과정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면서 자연현상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기에 이르러 자연과학분야가 인문과학분야로부터 차례로 분리되었다. 또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적 탐구도 자연과학이 채택하고 있는 경험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인간과 사회에 관련된 분야들은 사회과학이라는 학문 영역을 형성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Daniel Rigney & Donna barnes 1990).

2) 인용문헌분석법의 이용과 가치

인용문헌의 분석은 1927년에 P.L.K 그로스와 E.M 그로스(P.L.K. Gross; E.M. Gross)에 의하여 처음으로 시도하였다(Gross 1927). 인용문헌분석법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이 문헌의 가치와 신빙성의 인식, 그리고 효율적인 문헌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계량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인용문헌 분석의 전형적인 연구방법은 한정된 '소오스 저널(Source Journal)'의 각주에 제시된 전체 인용문헌을 형태별, 간행국별, 언어별, 주제별, 간행일별 또는 인용된 잡지명 등에 의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Robert N. Broadus, 1997). 인용문헌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용문헌을 수집할 '소오스 저널'의 선정인데 일반적으로 초록지, 색인지, 국가서지 또는 일반서지, 특수주제서지, 비평기사집, 일차자료, 'Science Citation Index'와 같은 인용 색인지 등이 이용된다(Britain & Line 1993).

이와 같이 인용문헌 분석법은 분석 대상 자료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시일 내에 수집할 수 있으므로 문헌의 평가방법들 가운데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문헌 분석방법의 타당성이 종종 논의되는 이유는 문헌인용 자체의 모호성 때문이며 정보관리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인용문헌 분석법은 연구자들의 문헌 이용률을 조사, 분석하며 문헌의 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정보원을 파악하고, 학문분야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밝힐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3. 국내외 연구동향

학문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연구는 1927년 Gross(P. L. K. Gross)와 Gross(E. M. Gross)의 연구 이래로 1960년 버턴(R. E. Burton)과 케블러(R. W. Kebler)가 핵물리학 분야에서부터 출발하여 1963년에는 코올(P. F. Cole), 얼(P. Earle)과 비커리(B. C. Vickery)가 1965년에는 영국에서 간행된 사회과학분야 문헌에 대한 연구와 미국에서 발표된 사회과학논문을 대상으로 브로드너스(R. N. Broadus)는 교육학 분야에서 단행본의 인용이 30%, 기타 사회과학에서는 50%, 언어별로는 90%가 영어 문헌이었음을 밝혔다. 또한 학문간의 의존도 비율은 사회과학은 70%, 기타 과학 의존도는 30%임을 밝혔다(Broadus 1971).

랍스나이더(J. Rafsnider)는 자연과학자와 사회과학자의 정보이용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연구정보가 출판물의 형태로 발표되기까지의 시간의 자연이 연구자의 연구진행에 제한을 주는 것과 동시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구 활동에서 양자의 지식성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연과학 문헌은 현행 연구 결과를 사회과학 문헌보다 많이 인용하고 사회과학 문헌은 과거의 연구 결과를 더욱 많이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Rafsnider 1975).

스마아트(J. C. Smart)와 엘톤(C. F. Elton)은 교육학 잡지의 인용비율과 구조적 특징을 밝히면서, 교육학 영역에서의 148개의 잡지를 대상으로 논문수, 자분야 인용도, 참고문헌 빈도, 근접지수(Immediacy Index), 보상지수(Price Index)의 5개 항목에서 측정하였다. 그리고 50%의 인용문헌이 10종의 잡지에 분포되고, 75%의 인용문헌은 30종의 잡지에 나타난다고 밝혔으며, 높은 인용도를 가진 교육학 잡지는 자분야 인용도도 높다고 주장하였다(Smart & Elton 1981).

화이트(H. D. White)와 그리피스(B. C. Griffith)는 「JASIS」에서 동시 인용을 통한 저자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정보학내 각 전공영역별 저자군 및 저자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White & Griffith 1981).

써머스(E. G. Summers)는 「Reading Research Journal」는 문헌에 대한 인용 문헌 분석방법의 응용에서 교육학, 심리학, 심리학 분야 핵심 잡지 27종을 추출하였다

(Summers 1984). 최근 닐리(J. D. Neeley)는 경영학과 다른 사회과학간의 학문간 상호 인용을 조사하여 다른 사회과학의 경영학에의 의존도보다 경영학의 다른 사회과학에의 의존도가 일반적으로 높음을 밝혀 경영학의 종합 학문적 성격을 알아내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응용 시에는 중앙도서관에서보다 경영학 분관도서관에서 더욱 많은 경영학 관계문헌의 복본이 요구되어진다고 주장하였다(Neeley 1981). 국내에서는 1971년 우경희의 “과학정보의 수명측정”에서였다. 그는 1969년부터 1970년까지 2년간 국내에서 발간된 의학을 제외한 자연과학분야 112종의 잡지에 발표된 1,514편의 논문에서 인용문헌 27,724편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외국문헌의 인용이 87.2%, 국내문헌 인용이 12.8%이며 국내문헌의 반감기는 1.56년, 외국문헌의 반감기는 8년이라고 밝혔다(우경희 1971). 이후부터 인용 분석에 관한 국내 연구도 여러 편 시도되었는데 신정원은 1970년부터 1971년까지 국내 3개 이학잡지의 논문 1,032편에서 16,899편의 인용문헌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자들의 외국문헌에의 의존도를 측정하였다(신정원 1974). “한국 화학자의 연구정보원 : 인용 분석”을 연구한 구자영(구자영 1975)과 “의학도서관에서의 잡지선택에 관한 고찰 : 인용문헌을 중심으로”의 김호배의 연구(김호배 1976)는 각각 자연과학분야 문헌의 정기간행물예의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주었으며 영어예의 의존도가 절대적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박정윤이 국내 경제학 관계 학술지 3종을 대상으로 분석(박정윤 1978)한데 반해 정진식은 외국경제학 잡지 5종을 대상으로 인용 분석을 시도하여 두 연구의 결과가 상이함을 보여 주었다. 즉, 국내 경제학 잡지는 단행본예의 의존도가 67.2%, 정기간행물예의 의존도가 30%인데 반해 외국 경제학 잡지는 단행본예의 의존도가 40%, 정기간행물예의 의존도가 더욱 높음을 밝혀내었다. 이외에도 국어학 분야 석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한 정준민의 연구(1978), 역사학 관계 잡지 5종을 대상으로 한 정춘화의 연구(1978)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체육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한 김영귀(1980)의 연구, 경영학 관계 학술잡지를 대상으로 한 최희운의 연구(1983), 전자계산학 분야 학술잡지를 대상으로 한 최승주의 연구(최승주 1984), 정치학 관계 학술지 2종을 대상으로 한 박중희의 연구(1985) 등이 있으며, 최희운은 “경영학 문헌의 계량서지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1978년부터 1982년까지 5년간 「경영학연구」, 「산업과 경영」, 「경영론집」의 학술지 3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총 185편 논문에서 3,578편의 인용문헌을 추출하였다. 그는 경영학의 주제를 9개의 하위 주제로 나누어 저자의 생산성을 분석하였으며 「로트카」의 법칙이 수정 없이 적용됨을 발견하였다.

Ⅲ. 조사 설계

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식조리 분야의 학문간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관련학회

지를 한국조리학회와 한국외식경영학회지로 한정하였다. 조사범위는 창간호부터 2004년 6월까지 발간된 학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문분야는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공학 및 예술체육, 의학의 분야로 분류하였다. 학문분야를 인문, 사회, 자연 등 몇 개의 큰 영역으로 구분하는데는 분류자에 따라 이런 저런 시각이 있지만, 본 연구는 듀이십진분류체계에 따른다. 또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Documentary Study)와 실증연구(Empirical Study)를 병행한다. 문헌연구로는 외식조리학의 정의와 학문적 성격을 토대로 인용영역분석법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2. 분석방법

조사된 인용문헌은 가능한 한 실사를 통하여 그들의 주제, 문헌의 종류, 간행시기, 간행지 및 언어를 확인한 다음 이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1) 조사된 인용문헌 중 타 분야의 학문분야별로 집계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의 해당 분야 및 연구 성과의 이용비율과 이용된 전체 타 분야 연구 성과에 대한 학문분야별 이용비율을 산출한 다음 그것들을 이 연구의 조사대상 분야별로 비교 분석한다.

(2) 국내 학술잡지군 중에서 인문학분야, 사회학분야, 순수과학분야, 응용과학분야 등은 표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학문 분야의 전공자들에게 도움을 받아 국내의 대표적 학회지를 선택한다.

(3) 참고문헌이 연구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주제분야의 인용내용에 따른 분류와 인용문헌의 인용정도 및 인용부분의 특성에 다른 분류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한다.

실증연구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한국조리학회와 외식경영학회의 학술지의 참고문헌을 수집, 이를 토대로 분류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하여 외식조리학 분야 연구논문의 학문분야 분포와 출판형태별 분포, 국가별 분포를 도출해내고 연도별, 인용영역별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병행하였다.

IV. 결과 분석

1. 학문분야별 인용빈도

1) 연구방법별 빈도

학문분야를 연구방법에 따라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인 직관적 통찰과 양적 연구(Quantitative Study)인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량화된 결과는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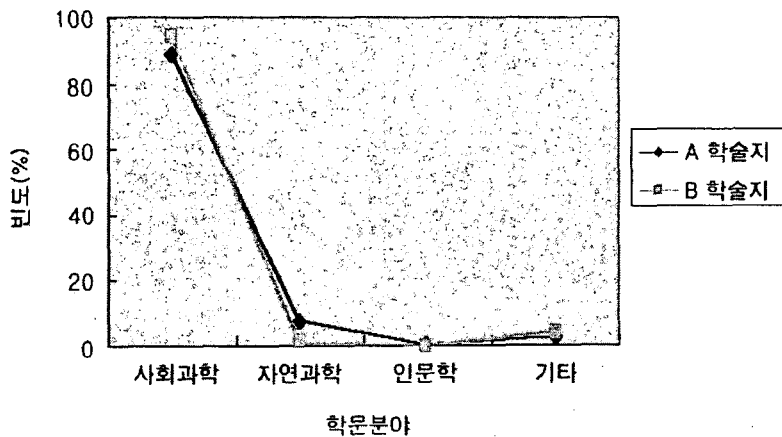
〈표 2〉 학문분야별 인용빈도

연구방법	'A' 학술지(%)	'B' 학술지(%)
질적 연구	35.14	31.21
양적 연구	64.86	68.79
합계	100	100

위와 같이 'A' 학술지의 경우 총 296편 중 질적 연구가 104편, 양적 연구가 192편으로 질적 연구가 35.14%, 양적 연구가 64.86%로 나타났으며 'B' 학술지의 경우 총 157편 중 질적 연구가 49편, 양적 연구가 108편으로 질적 연구가 31.21%, 양적 연구가 68.79%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논문의 형식이 양적 연구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문분야별 인용분포도

각 학회지에 게재된 학문분야별 인용분포를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학, 기타 학문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A' 학술지의 경우 사회과학 문헌 인용 비율이 88.89%, 자연과학 문헌 인용 비율이 7.61%, 인문학 문헌 인용 비율이 0.51%, 기타 문헌 인용 비율이 2.99%로 나타났으며, 'B' 학술지의 경우 사회과학 문헌 인용 비율이 94.42%, 자연과학 문헌 인용 비율이 1.17%, 인문학 문헌 인용 비율이 0.17%, 기타 문헌 인용 비율이 4.24%로 나타났으며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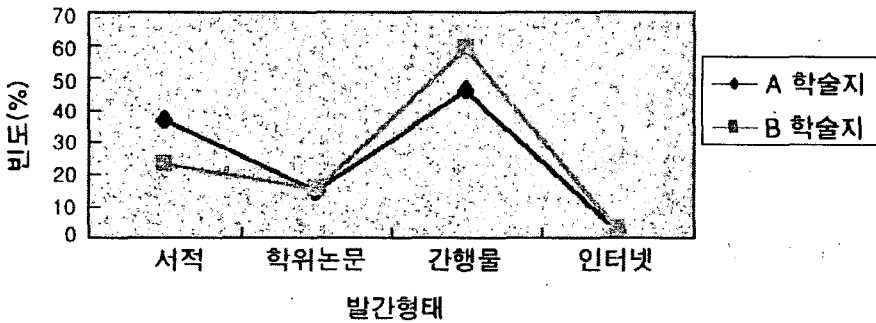


〈그림 1〉 학문분야별 인용 분포도

3) 발간형태별 인용빈도

각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발간형태별 인용문헌을 서적과 대학에서의 학위논문

과 학회지, 신문, 학술대회 발표 자료 등의 간행물, 인터넷을 통한 자료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발간형태별로 'A' 학술지의 경우 서적 인용 비율이 37.13%, 학위 논문 인용 비율이 14.25%, 간행물 인용 비율이 46.04%, 인터넷 인용 비율이 2.58%로 나타났으며, 'B' 학술지의 경우 서적 인용 비율이 22.84%, 학위 논문 인용 비율이 15.11%, 간행물 인용 비율이 58.94%, 인터넷 인용 비율이 3.1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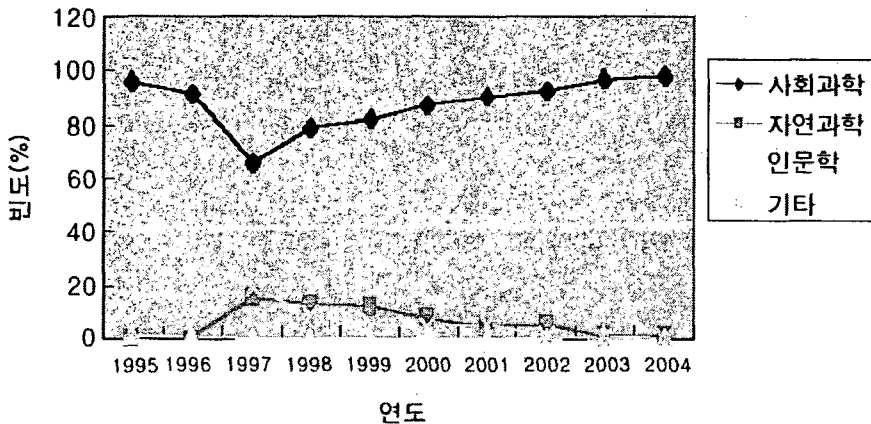


<그림 2> 발간형태별 인용비율

2. 교차분석

1) 발행연도와 학문분야간의 관계

'A' 학술지와 'B' 학술지의 발행연도에 따른 논문의 참고문헌을 학문분야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다.



<그림 3> 발행연도와 학문분야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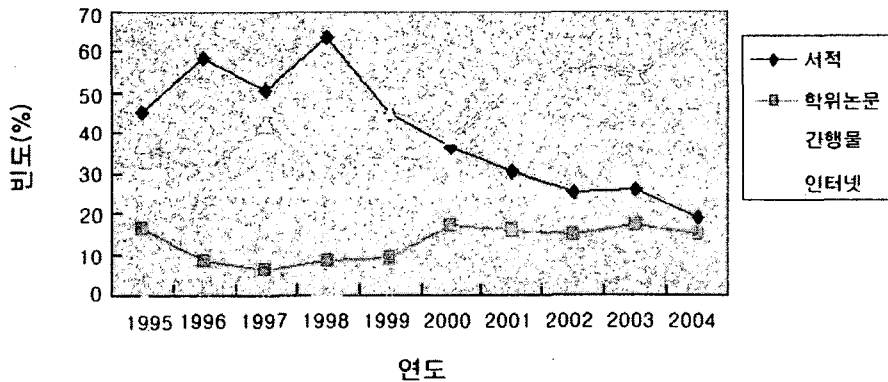
〈표 3〉 발행연도와 학문분야간의 관계

년도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학	기타	합계
1995	96.32	0	0.74	2.94	100
1996	91.25	0.62	1.25	6.88	100
1997	65.25	15.44	0	19.31	100
1998	78.07	13.11	0.41	8.41	100
1999	82.2	12.4	0.44	4.95	100
2000	87.5	8.17	0.19	4.13	100
2001	90.6	4.11	0.2	5.12	100
2002	93	5.57	0.07	1.34	100
2003	96.9	1.6	1.12	0.42	100
2004	98.7	1.09	0.2	0	100
합계	90.6	5.62	0.40	3.38	100

발행연도와 학문간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 자연과학, 인문학, 기타 학문 분야의 인용비율이 20%를 넘지 않으며 사회과학 영역의 인용률이 전반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학문이 사회과학 영역에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 발행연도와 발간형태별 관계

발행연도와 발간형태별 관계를 ‘A’ 학술지와 ‘B’ 학술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그림 4〉 발행연도와 발간형태별 관계

〈표 4〉 발행연도와 발간형태별 관계

년도	서적	학위논문	간행물	인터넷	합계
1995	45.59	16.91	37.50	0	100
1996	58.75	8.75	31.25	1.25	100
1997	50.58	6.18	42.47	0.77	100
1998	63.52	8.81	27.46	0.20	100
1999	44.7	9.17	45.40	0.73	100
2000	36.5	17	39.3	7.2	100
2001	30.3	16.1	50.8	2.81	100
2002	25.2	15	57.9	1.88	100
2003	25.6	17.2	53.8	3.4	100
2004	18.8	15.2	64.12	1.88	100
합계	32.71	14.54	50.03	2.72	100

위와 같이 각 연도별로 발간형태별 분류를 한 결과 서적과 간행물의 인용빈도가 가장 높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한 학문의 학문적 수준이나 연구방법론이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룩하였는지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학문 분야 전문 학술지의 수준이나 연구방법론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기법을 통한 외식조리학의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관광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관광학계의 대표적 정기학술지라 할 수 있는 “관광학 연구(Journal of Tourism Sciences)”의 게재논문들을 통해 이를 알아본 연구가 있다. 표는 처음 학회지가 발간된 1977년부터 최근호에 이르기까지 414편의 논문을 접근방법별과 방법론적 우수성 정도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우선 접근방법별로 보면 경험적 연구가 크게 유행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초기의 10%대에서 최근에는 89%대 수준에 도달한 것이 그것이다. 이와 반대로 기술적·규범적 접근과 처방적 접근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연구나 규범적 연구가 결코 낮은 수준의 접근방법이란 뜻은 아니지만, 사회과학을 표방하는 관광연구의 성격으로 볼 때 이는 어느 정도 진전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외식조리분야의 학문분야간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다양한 유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내용과 관계가 깊은 문헌을 인용하고 참고문헌으로 기재한다. 논문에서 연구자를 인용하고 참고문헌을 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논문에서 인용된 문장은 인용된 문헌을 핵심적인 용어로 기술하고 있다. 검색에서 주제 표현과 참고 문헌 표현을 비교하면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검색할 때 정확율이 더 향상된다.

둘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연구자가 핵심문헌을 추적하기 위해 인용색인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참고문헌을 사실상 내용지표로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문헌 인용방식별로 인용빈도 도수를 측정하여 각 학문 영역별 연구자들의 인용 패턴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외식조리학 분야의 학문영역별 특성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외식조리 관련 학술지와 그와 관련한 학술잡지의 양적 성장과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데 뜻깊은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불필요한 인용을 제거함으로써 학술정보의 흐름을 바른 방향으로 촉진시켜줄 수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4학년도 경기대학교 국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참고 문헌

1. 구자영(1975) : 한국화학자의 연구정보원:인용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26집:111-131.
2. 관영남(關英男1971) : 情報科學と五次元世界, p.101, 日本放送出版會, 東京.
3. 구본영(2003) : 문헌정보학입문, p.4, 한국도서관협회.
4. 김사헌(200) : 관광학연구방법강론, pp.103-109, 백산출판사.
5. 김영귀(1980) : 한국체육교육분야 연구논문의 인용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용성(1989) : 학문분야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2.
7. 김호배(1976) : 의학도서관에서의 잡지선택에 관한 고찰 : 인용문헌을 중심으로. 한국의학 도서관협회지 3(2):1-12.
8. 박영선 외(2000) : 조리과학, 효일문화사 10.
9. 박정윤(1978) : 한국경제학자들의 문헌 이용 동태 : 인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0. 박중희(1985) : 한국정치학 문헌에 있어서의 인용문헌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신정원(1974) : 한국의학도서관에 있어서의 도서선택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제2집: 266-295.
12. 액전암(額田巖1971): 成田寅彦, 情報産業社會, 東京, 産業能率期大學出版部.
13. 우경희(1971): 과학정보의 수명측정, 도서관, 21(7): 4-5.
14. 이광원(1994): 관광학의 학문적 체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13권:110.
15. 정동열(1992) :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pp.9-10, 서울, 구미무역 출판부.
16. 정준민(1978) : 국어학문헌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정춘화(1980) : 한국역사학자의 문헌이용실태 : 인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최희윤(1983) : 경영학문헌의 계량서지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Broadus RN (1971) : The Literature of the social science : A survey of citation analysi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239(2):236-243.
20. Carolyn O Frost (1989) : The literature of online public access catalogs, 1980-85 : An analysis of citation pattern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33(Oct): 344-357.
21. Daniel Rigney, Donna Barnes (1990) : Patterns of interdisciplinary citation in the social sciences. *Social Science Quarterly* 16(1):114.
22. Dann G, Nash D, Pearce P (1988) : Methodology in tourism resear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 1-28.
23. <http://www.naver.com>, 백과사전.
24. Britain JM, Maurice Line (1993) : Sources of citations and references for analysis purposes: A comparative Assessment. *Journal of Documentation* 29(1) : 73-80.
25. Kenneth E Boulding (1969) : Economics as a moral science. In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9(1): 1-12.
26. Halbert MH, Ackoff RL (1999) : Operations research study of the dissemination of scientific information, In:Proc.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tific Information. *Washington: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 97-130.
27. Melvin Weinstock (1971) : Citation index,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Marcel Dekker 5: 16-19.
28. Neeley JD (1981) : Management and social science literature : An interdisciplinary cross-citation analysis. *JASIS* 32: 217-223.

30. Gross PLK, Gross EM (1927) : College libraries and chemical education, *Science* 66:1713: 385-389.
31. Rafsnider J (1975) : Complementarity between a use study and a citation study in considering publication practice in the physical and social sciences. *JASIS* .26: 344.
32. Robert N Broadus (1997) : The literature of the social sciences : A survey of citation studies. *International Social Journal* 23(29): 236.
33. Smart JC, Elton CF (1981) :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citation raters of education journal, American education journal. *American Ducational Research Journal* 18(4): 399-413.
34. Summers EJ (1984) : A review and application of citation analysis methodology to reading research journal literature. *JASIS* 35: 332-343.
35. Taylor Robert S(1966) : Professional aspects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ARIST), 1 Edited by Carlos A. Cuadra. New York: Wiley:19.
36. Friis T (1955) : The use of citation analysis as a research technique and its implications for libraries. *South African Libraries* 23(6): 12-15.
37. White HD, Griffith BC, Author Co Citation (1981) : A literature measure of intellectual structure. *JASIS* 32: 163-171.

2005년 7월 15일 접수

2005년 9월 16일 게재확정